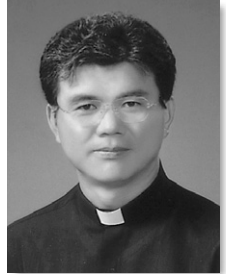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스마트 NO! 바보 OK!



이진호 안토니오 신부
1대구 사목국장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신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셨다. “나는 바보야!”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린 장기려 박사도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 바보야.” 톤즈의 성자 이태석 신부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바보 신부, 아프리카는 왜갔어?” 이분들이 정말 바보이실까? 왜 이분들은 덜 떨어진 사람, 등신처럼 사는 바보가 되었을까? 본래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大智若愚)일까?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보는 누구이실까? 어떤 바보이실까? 오늘 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소개해 주신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하느님이신 분께서 어린양이 되시다니……. 그 까짓 인간의 죄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시다니……. 바보대왕 예수님?

대한민국은 갈등으로 사회가 뜨겁다. 계층, 이념, 세대, 지역, 노사간의 갈등이 대표주자이다. 종교인이 늘고 있다는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럴까? 혹시 신자인 우리가 바보스럽게 살아서가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바보스럽게 살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늘에 영광, 땅에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하느님의 어린양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신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 받은 이는 복되하다.” 하느님 어린양의 성찬에 참여하기가 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비와 평화를 입은 또 다른 어린양이어서가 아닐까? 갈등왕국에 파견된 세상의 어린양이어서가 아닐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늘에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가 되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될 수 있을까?

김수환 추기경, 장기려 박사, 이태석 신부와 같은 어린양들은 그 힘을 어디에서 받은 것일까? 하느님 어린양의 자비와 사랑에서 얻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드린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희생으로 이룩하신 하느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스마트한 갈등왕국일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리석어보이는 꾀도 없고 실속도 못 차리는 바보 왕국일까? “주님, 제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성체를 모시는 자신에게 외쳐보자.

“스마트 NO! 바보 OK!”

생명의말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 참조
이사 49,3,5-6 1코린 1,1-3 요한 1,29-34.

14.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 드망즈 주교 선종

문화홍보실

초대 교구장이셨던 드망즈 주교님은 교구의 초석을 놓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대구교구가 따라야 할 많은 모범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루신 업적, 베푸신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착한 목자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교님의 건강이 나빠지신 것은 1937년 가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악화되는 병세에도 불구하고 주교님은 경상도 북부 지방을 순회하는 사목방문을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당시 총대리였던 무세 신부가 가시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 드망즈 주교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교님은 교구의 사무를 무세 신부에게 맡기고 당신이 설립하신 무료진료소인 성요셉 병원에 몸을 맡기셨습니다. 1938년 2월 9일 새벽, 주교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시고 선종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가톨릭 정신 하에 계명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모두 서로 화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친교를 나누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성교회의 유익만을 생각하십시오.”

드망즈 주교님의 병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치기 어려웠지만 서양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가 주교님께 본국으로 돌아가서서 치료를 받으시도록 권유했더니, 드망즈 주교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병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지경이 되어 한국을 떠나는 것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맡기신 대구는 저에게 제 2의 고향이 아니라 제 1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죽어 묻힌다면 제게는 영원히 한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이기적이고 비뚤어져서, 우리는 이제 누가 사랑을 이야기해 주어도 믿지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은 설명이 필요 없는 법입니다. 드망즈 주교님이라고 낮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맡기신 대구교구 신자들을 떠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교님이야 워낙 보통 분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피로 씻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떠나서는 안 되는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열심히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주일

입당 성가

25 사랑의 하나님

화답 송

◎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복음 환호 송

◎ 알렐루야.

봉헌 성가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체 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파견 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영성의 향기

∴ 나는 너를 벗이라고 부르겠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만 해도 아버지와 자식, 목자와 양떼, 임금과 백성, 포도밭 주인과 포도나무 등으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 표현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뜻깊게 들리는 말은 벗, 그러니까 친구 사이입니다. 하느님께서 첫 인간을 에덴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고 친밀한 우정을 즐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께서 에덴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정치도 종교 의식도 아직 생기기 전이었고, 사람과 창조주 하느님의 관계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함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이런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요한15,15)하심으로 써 이 관계가 복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은 하느님과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자주, 또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친구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관심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관심이 없고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친구, 시간을 내 주지 않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저출산국가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030년경에는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굶어죽게 된 이스라엘을 구출한 영웅 요셉은 열두 형제의 열한 번째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지만 하느님의 총애를 받고 구세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태어나는 아기들 하나하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기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들이 저지르는 갖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 율려은 글입니다 -

100주년 홈페이지
www.100-years.or.kr
100주년 트위터
twitter.com/renew2011
100주년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new2011
오픈: 2011년 1월 10일(월)

- 행사 / 모임 -

전례꽃잎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17(월) 14:00, 교구청별관 대회의실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전례꽃잎연구회'
제20회 성 이윤일 요한제
일시: 1.21(금) 17:00, 관덕정순교기념관
2011 말씀가족 새해맞이 첫인사
성서사도직 신년교례회
일시: 1.22(토)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문의: 성서사도직담당 250-3082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1.24(월) 20:30, 상인성당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교구설정 100주년 기념 생명사랑나눔 대축제
일시: 5.7(토), 8(일) 양일간
장소: 교구청 내 운동장 및 대강당
내용: 바자회, 사회복지박람회, 다문화축제
바자회 참여 개인, 분당, 단체 모집
문의: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253-9991

- 성소 / 피정 -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1.19(수) 13:00~17:00, 지도신부: 강요셉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예수 마음 기도 영성수련
4막5일: 1.18(화)~22(토), 1.25(화)~29(토)
8막9일: 2.6(일)~14(월), 3.10(목)~18(금)
대상: 일반신자 및 성직자, 수도자
문의: (011)946-2337-8
www.jesumaum.org

2011 호산나 어린이 피정
일시: 1.21(금)~22(토)
대상: 초등학생(회비: 3만5천원)
장소: 서울 삼성산 청소년수련관
문의: 삼성산성령수녀회 (010)6558-3452

- 모집 / 교육 -

오르간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새빛학교 한글·국어반 신입생 모집
접수: 1.18(화)부터
대상: 한글에 자신 없는 성인남녀
문의: 476-3100 (교대역 3번출구)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2.15(화)~18(금), 9:00~17: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신청: 2.7(월)까지(본당으로 공문 발송)
문의: 250-3066 / (010)3823-9007
가톨릭어버이성경학교 신입생모집
일시: 2010.12.1(수)~2011.2.19(토)
낮반 - 화요일 10:00 부터
밤반 - 화요일 19:30 부터
대상: 가톨릭신자 누구나
문의: 815-7888 / 815-0337
9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2차 2.26출발 (8주, 12주)
3차 3.26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593-1273
복음적인 생활형성 강좌안내
신앙, 영성, 전례, 신심, 기도, 공동체생활에
관한 영성생활의 전반적인 신앙교육
강사: 정대식(폴로리아노) 신부
일시: 3.14(월)개강 ~ 6.13(월)수료미사
문의: 가톨릭여성교육관 254-6115
'앗슴' 조이플 스테이
일시: 1.22(토)17:00 ~ 23(일)15: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상: 미혼여성 (성경, 세면도구)
문의: (010)9056-9005

가톨릭원격평생교육원(1월중 1차모집)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문의: 1577-0361(www.ccc.or.kr)
안동교구소속 유익의 원격평생교육원
5차원 전면교육 리더십 특별과정
일시: 1.29(토)~31(월)22기, 2.25(금)~27(일)23기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054)436-0184
대상: 초·중·고 대학생(전화신청 가능)
문의: (010)7536-9597 / (010)3883-7004
주관: 유아청청소년영성의집 살레시오수녀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대상: 만15세이상남자, 1년과정
(생생기계, 기계설계제작 각30명)
인성및종교교육, 교육, 기술사무료,
수당지급, 고검 방통고 운영, 취업알선
마감: 2.28(월), 문의: (02)828-3600

- 직원 채용 -

비안네유치원 교사채용
자격: 유아1정 자격소지자, 원감자격소지자
AMI몬테소리 교육이수자
서류마감: 1.17(월) ~ 21(금) 18:00까지
본유치원 교무실
문의: (010)6545-1982
교구청 경비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제출기한: 1.21(금)
제출 및 문의: 교구청 관리과 250-3030

- 안 내 -

이윤일 요한 성인과 함께 드리는 9일 기도
주제: 순교의 꽃이 핀 교구 100년
일시: 1.17(월) ~ 20(목) 15: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예비지원자를 위한 프란치스코 영성강의, 미사
일시: 매월 셋째 토요일 14:00
장소: 월배 수도원
대상: 53세 이하 가톨릭신자
문의: 632-9800 / (011)9594-9441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포항지역 군중후원의 미사	1월 17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안티성지 후원의 월례미사	1월 17일(월) 오전11시	안티성교성지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의 월례미사	1월 17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감천지역 밀알후원의 미사	1월 18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2484 익스프레스
첼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여거리 ↔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예금과 대출은
• 신속하고 간편한
- 아파트보, 중소기업, 개인사업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판희(안토니오)

28년 전통성가정의 만남
성심결혼
보증보험가입, 국가등록업소
초혼부 · 재혼부
☎ 558-3003, 644-4007
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실(마리아)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 선일외과의원 ♣
원장, 전문의 : 배선익(사도요한)
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출구, 수성못방향 → 300m
TEL : 745-6633~4

애플비뇨기과
비뇨기과전문의원 원장 강 일 (베드로)
이영국 (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 (레이저수술, 임플란트)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색채) www.appleuro.com
범어여거리 애플타워5층 Tel. 053.755.0888

관안신연합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영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 광동석
교수술 · 예방접종 · 영유아검진전문병원
서부정류장, 옛 달성군청 옆 삼광빌딩 4층
☎ 638-7582 (치료빨리)
HOME PAGE : www.ksnose.com

FM치과병원
임플란트 ◆ 보철
다년간 축적된 수술경험으로 환자에게
편안하고 합리적인 진료를 약속합니다.
◆ 죽전내거리(☎ 560-4071~2)
(지하철 2호선 죽전역 1,4번 출구)
원장 정재원(토마스 모어)